

歷	史	紀	行
---	---	---	---

황망한 대륙에 서린 한족(韓族)의 통한(哈)

정현택/자유기고가

禹가 8년동안이나 功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걱정하여, 남악형산(南嶽衡山)에 이르러 천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드려 성공을 빌었는데, 꿈에 어떤 남자가 스스로 현이(玄夷)의 창수사자(蒼水使者)라 일컫고, 우에게 말하기를, 구산(九山) 동남쪽의 도산(塗山)에 신서(神書)가 있으니, 석달동안 제계(齋戒)하고, 그것을 꺼내보라 함으로 우가 그 말에 의하여 금간옥첩(金簡玉牒)의 神書를 얻어 五行通水의 이치를 알아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고 이에 주신(州愼)의 덕을 잊지 못하여 정전(井田)을 제정하고 울도량형(律度量衡)의 제도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현이(玄夷)란 당시 조선의 동서남북중 5부를 지칭했고, 북부가 현부로써 중국인들이 조선을 가르켜 현(玄)이라고 지칭했으며, 창수란 지명은 주신 숙신 직신 식신등으로도 번역되고 이것 역시 조선을 가르킨 말이다.

우리가 단군기원을 기산할 때 동국통감, 제왕운기, 삼국유사등의 문헌을 전고하여 중국 당요무진(唐堯戊辰) 원년을 단군기원으로 했다.

또한 당요때의 9년홍수시 그 치수방법을

동쪽 단군에게서 배워왔더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거론하는 역사적 에피소드이다.

2000년 11월 9일자로 중국정부는 그들의 상고시대 역사를 구분할적 堯, 舜은 하나의 전설이고, 夏禹가 BC2070에서 개국하여 중국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 그들은 소위 세계 最古의 역사문화민족, 夏華文明이라는 역사주권사상에 따라 夏商周 역대 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하건국 BC2070보다 더 상대로 올라가서 그들의 역사를 약6천년전으로 기원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올해로 단군기원 4339년인데 그들은 황제 희현원 (BC2698)부터의 아득한 전설시대를 그들의 역사원년으로 잡으려고 각종 시증을 부회하여 합리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원자탄, 수소탄을 만들고 有人우주선 신주(神舟)2호를 쏘아올리며 연9%이상의 고도성장을 1978년 개혁개방이후 해마다 성취하다보니 이제는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의 유일한 길항(拮抗)국가로써 그들의 역사문화까지 세계최고의 국가라고 억지로 만들어 엮어가고 있다.

각설하고 나의 여행수첩에는 언제나 백두산 정계비, 광개토왕비석의 의문나는 글귀들이 메모되어 있다.

특히 조선숙종때의 백두산정계비는 참으로 오늘의 시각에서 통탄할 일이다.

그때 우리조상들이 좀더 통큰 시야와 올바른 국가관을 가졌더라면 최소한 간도땅은 확보되었을 것인데 백두산 분수령에도 오르지 못하고, 당시 한국측 대표였던 참관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등은 압록강과 토문강(지금의 오도백하)의 분수령에 미치지 못하는 해발 2000m만 고작 올라가서는 군관등 하위자들이 청나라 총관 목극동과 더불어 세운비가 정계비인데 세월이 흘러 日人들이 만주진출을 위해 철도부설권을 흥정하면서 우리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정되는 민족의 일대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만주사변때 일본인들은 훗날 중국과 한국의 국경분쟁의 말썽이될 이 정계비를 뽑아서 없애버렸다.

당시 고위국가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하였스니 오늘날 우리후손들이 간도는 우리땅이라고 중국에 대하여 아무리 악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조선조 500년동안 孔孟의 유가철학을 國是로 하여 절대적 이데올로기로 삼았지만 사실 先秦實踐儒學은 뒷전에 미루고, 정주(程朱)의 性理學 즉 空理空談, 思辨哲學에 치우쳐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나라의 國力은 차치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치다가 종묘사직을 日人에게 빼앗기게 되는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주의 성리학이 공맹유학의 전부가 아니지만 年前에 어떤이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은 일용말이되는 소리다.

유림에서는 괴문난서(怪聞亂書)라고 질

타하여 저자를 괴롭혔지만 지금도 정주성리학의 잔재가 큰소리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각설하고 또 한분의 태산복두같은 존경받는 선비 담원 정인보선생의 글을 한번보자.

"우리 國外에서 성상(星霜)(세월)을 지낸 지 오래라. 그때는 生者들 또한 死路를 밟아 의기하는(의지)바 오직 선열을 혼백함에, 거의 人鬼(사람과 귀신)의 隔(간격)을 잊었더니, 이제 故土에(광복된 조국) 들어와 동포민중의 품에 안기니, 와락 자신의 存留함이 어찌 그리 廓然(廓然)(큰 모양)함을 느끼나이다. 들어서면서 곧 미침(微忱)을(정성을) 드리려 한 것이 오늘에야 겨우 추념하는 대회를 거행하게 되니, 늦으나 오히려 우리의 정을 기탁함직하되, 우리 선열계 바칠 馨香(馨香)(분향)이 광복의 完成 즉 獨立의 告功에 있을 뿐이어늘 이제 여기까지 達함에는 아직 距離 없지 아니할새 靈前에 향하는 蠅尼(蠅尼)(부끄럽고 창피함) 자못 무거우나 몇십년전 黯黑뿐이요 누망(縲望)(실낱같은 희망)이 없던 그때에도 선열은 꺾기지 아니하였스니, 우리 이제 수성(垂成)의 業(자손에게 사업을 완성토록 하는 것)에 헌신함을 맹세할 것은 물론이요, 時 今昔(현재와 과거)이 있다 할지라도 民是(백성의 定道)는 선열의 유서(遺緒)(남겨준 실마리)로부터 내려와 依然할 바니 우리 現下를 들어 선열계 고하려 하면, 여러분 在天하신 英靈은 우리를 위하여 兢兢(耿耿)할지니(춷불이 깜박깜박이듯 마음에 잊혀지지 않다), 그 백절 불굴하신 의기, 지순지결하신 고조(高操)(높은 지조), 民我無間하신 誠心, 勇猛卓特(우뚝하고 특별하다)하신 용개(勇慨)(용맹와 기개)를 전 민중으로 하여금 效則(본받아 귀족으로 삼다)하게 하사, 이로써 태운(素

運)(태평스러운 국운)을 맞이하여 위로 국조홍익(國祖弘益)(단군왕검)의 성모(聖謀)(성스러운 통치방책)를 重新(거듭새롭게 하다)하게 하시며, 이로써 삼천만의 기원을 맞추어 부르게 하소서.”

이 글은 광복후 국가의 독립순국선열기념식의 정인보선생 글이다.

내가 굳이 이 글을 인용함은 만주벌 동북3성 후미친 산골과 산서성, 섬서성등 당시 중국공산당의 신사분, 팔로군에 속해 일본군을 격퇴시킨 조선족 장병들이나 또는 상해임정휘하의 광복군에 편입되어 중국 중서부 지역에서 분투하시던 우리의 독립투사들의 고전적을 답사할때마다 이 글월을 되새겨 본다.

우리의 유사 이래 수많은 조상들이 중원땅에 즐린 피자국, 그 처절했던 노예생활의 통한(痛恨)의 눈물이 서린 지역을 아는되로 물어가면서 찾아 천하를 주유하는 것이, 내 돈 들고 아무도 알아주는이 없는 오직 나 혼자만의 자위(自慰)요, 도락(Hobby)이다.

좋은말로 Tracking Travel이지 실은 낯설고 말설고 기후가 다른 이국땅에서 같은 고통과 인내와 수모와 의사소통의 애로, 금전적 수난등을 스스로 즐겨 자초하면서 미친 듯이 찾아해매는 모습이 60을 넘긴무직자 나의 자화상이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멸망시 포로와 노예로 붙잡혀간 우리의 수십만 조상들로부터, 여말의 몽고족 침입때 붙들려간 고려여인, 병자호란때 끌려간 조선여인, 일정때 대륙에서 항왜분전하시던 조상까지, 신라이래 수도불승(修道佛僧), 유학자, 사철절기따라 번국(藩國)으로써 중국 천자에게 조하(朝貢)를 위해 부단히 왕래했던 조정외교사절들의 발자취, 기타 Silk Road를 따라 중앙아시아 즉 머나먼 천산산맥, 곤륜산맥, 파미르고원,

원두쿠시산맥등 천험(天險)을 넘어 대륙을 누비던 고산지장군등 우리들의 위대한 선조의 흔적이 깃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등 내 발길이 닿는되로의 기행을 붓가는되로 두서없이 난필(亂筆)해 본다.

却說하고, 이제 중원의 중심 북경에 둘러 위대한 우리의 조상 음악가 鄭律成선생의 거룩한 유적을 답사해보자.

정율성 선생은 하동정씨로 호남 광주가 본산이고 선생의 조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열열한 항일 투사이다.

성급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율성 선생의 이력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정율성(본명 정부은)선생은 일정시 광주에서 태어나 상해로 건너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천부의 재질을 가진 음악공부에 정진하여 25세시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항일 군정대학에서 팔로군대합창이라는 군행진가곡을 창작했다.

30세때 연안의 모택동 인민해방군본부로 들어가서 의용군 행진곡, 팔로군대합창등 훌륭한 가곡을 작곡했고 1945년 북한으로 건너와 황해도 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을 담임하고 그뒤 조선인민군 부락부 부장을 겸임했다.

36세에 즉 한국동란때는 조선인민유격대전가, 전사의 맹세,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등 군가를 지었다.

37세때 중국으로 돌아와 만주둥지를 전전하면서 “홍안령에 눈꽃날리네”, “바다어부의 노래”, “체벌가”등을 작곡했다.

52세때인 1966년 문화대혁명때에는 선생 역시 많은 억압을 받았다.

1976년 62세때 별세하였다.

그는 주은래총리등 중국 공산당 창설원 로들과의 돈독한 친분관계를 가졌으며 오늘날의 중국해방군가인 즉 팔로군행진곡의 작곡가로서 지금도 중국에서 손꼽히는 조선족출신 음악가이다.

중국에서는 팔로군포병대장 김무정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족출신명사이다.

현재 그의 묘는 북경근교 팔보산에 묻혀 있고 부인 즉 중국여인은 한때 대사로서 외교관을 지낸자이고 자녀들이 작년과 올해 광주에서 거행된 정을성 선생 국제 학술 대회에 다녀가기도 했다.

정을성선생의 고난과 영광에 찬 행적을 Tracing하기 앞서 우선 팔로군 군가를 한번 보자.

1937년에 작곡되어 1941년 연안시절부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부르기 시작한 팔로군행진곡 인민해방군 행진곡 또는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중국인 公木이 作詞하고 作曲은 정을성선생이 하셨다. 가사는 이렇다.

向前向前向前
我們的隊伍象太陽
腳踏着祖國的大地
背負着民族的希望
我們是一支不可戰勝的力量
我們是工農的子弟
我們是人民的武裝
從不屈服勇敢戰鬥直到把反動派消滅干淨
毛澤東的旗幟高高飄揚

(이하생략)

이 가사를 우리말로 대중 번역하면 이렇다.

전진 전진 전진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 전진
조국의 대지에서 민족의 희망을 짊어지고
우리들은 전승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공농의 자제이다.

우리들은 인민의 무장이다.

불굴용감의 전투로 반동파를 소멸 간절할때까지 투쟁한다.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린다.

들어라. 바람결에 들리는 우렁찬 군가소리를

들어라. 혁명가의 노래소리 아득히 쟁쟁하구나.

동지들이여 해방의 전쟁에 발맞추어 힘차게 전진한다.

동지들이여 조국의 변경에 부임키 위해 발맞추어 용감히 전진한다.

전진 전진 전진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

최후의 승리와 전국의 해방을 향하여

최후의 승리와 전국의 해방을 향하여. 끝

4분의 2박자 이 우렁찬 군가는 우리들이 북경의 천안문광장 국기제양식이나 하강식 때 들을수 있다.

이 군가는 中國國歌 일명 의용군행진곡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널리 불리어지는 노래이다. 참고로 중국국가는 티엔 한(田漢)이 작사하고 니에 일(聶耳)이 작곡한 중국공산당 초창기의 의용군 행진곡으로

그 첫 가사는:

“일어나라 노예적 인간을 원치 않는다면”(起來!不願做奴隸的人間)

대단히 짤막짤막하면서도 장중하고 투쟁적이며 호쾌한 곡이다. (다음호에 계속)